일상회복 기대감에…유통가 '매출 회복' 봄바람

지역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116…2분기 연속 '호전' 전망
거리두기 완화·가정의 달 등 매출 상승 기대…백화점 지수 150
대형마트·슈퍼마켓 90…온라인 등과 경쟁 심화로 기준치 밑돌아

정부의 코로나19 추가지원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정책적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다음달 '가정의 달' 시즌까지 겹치면서 지역 소매·유통업체의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감염병으로 인한 온라인 시장 확대 등 경쟁이 심해진다는 점에서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59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1분기(101)보다 15포인트 상승한 116로 기준치(100)를 웃돌며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가 지원정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이끄는 상황에서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유통업계의 '대목'이라고 불리는 5월 가정의 달 특수 역시 체감경기 호전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경영항목별로는 전 항목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수익(116)은 거리두기 완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기준치(100)을 상회했다.

비용전망(117)은 구조조정, 광고비 절감 등 관리비용 축소 계획에 따라 전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전망(102)은 거리두기 조정 등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재오픈, 상권 활성화 등이 예상되면서 고용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태별로는 백화점(150)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및 패션제품 구매 경향에 힘입어 고가제품과 골프용품 등 매출증가가 예상돼 전분기 대비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편의점(100)은 간편식 수요증가와 협업상품의 판매호조 등으로 체감경기가 상승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형마트(90)는 근거리·소량 구매 트렌드 확산과 이커머스, 대형 슈퍼마켓 등과의 경쟁 심화로 전망치가 기준치(100)를 밑돌았고, 슈퍼마켓(90) 역시 가정식 관련 소비증가 및 근거리 쇼핑 선호 등에도 식자재 가격 상승과 중대형 슈퍼마켓 증가에 따른 업계 간 경쟁 심화로 매출이 부진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소매·유통업체의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이하 복수응답) 27.1%가 '온라인사업을 강화'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비용절감'(25.4%), '가격할인 등 프로모션 강화'(25.4%), '특별한 대책 없음'(18.6%), '배송 경쟁력강화'(13.6%), '점포(매장) 리뉴얼'(5.1%) 순이었다.

2분기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당면한 가장 큰 현안 및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소비위축'(33.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물가상승'(23.7%), '비용상승'(20.3%), '경쟁심화'(10.2%), '소비트랜드 변화 대응'(6.8%), '유통규제'(6.8%) 등이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가지원책과 거리두기 완화 등의 정책적 효과와 가정의 달 시즌이 겹치면서 지역 유통업계의 경기 호조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 재확산 우려와 온라인 시장 확대, 유통채널 경쟁 심화 등 업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들의 대응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93.10 (-7.29)
↓	코스닥	921.83 (-12.90)
↑	금리(국고채 3년)	3.186 (+0.199)
↑	환율(USD)	1233.10 (+8.00)

농협 전남본부, 현장 의견 수렴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 간담회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농산물 유통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회의실에서 산지유통관리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농산물산지유통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농협·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소속의 전문가 89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회장은 김도순 농협순천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가 맡고 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말미암은 농산물 소비침체 타개책으로 농가 조직화, 전문화, 규모화, 온라인 시장을 포함한 판로개척 등을 임원들과 협의하고 상호 간 결속을 다졌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국세청, 세무정보 취약 다문화가정 정보제공 등 협력체계 구축

광주 5개구 가족센터와 협약

이판식(왼쪽 세번째) 광주지방국세청장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소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은 11일 세무정보에 취약한 다문화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국세행정 권익보호를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소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국세청과 광주 5개구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 기관의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해 필요 시 강사진을 서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가정이 각종 증명발급 등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세무관련 건의사항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여기에 발간책자과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체결에 앞서 광주국세청은 각 가족센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제도, 세금포인트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안내하기도 했다.

이판식 청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다문화가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전남과 전북 등 지역 소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추진해 세무정보에 취약한 다문화가정에게 유익한 세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산단공, 中企·스타트업 개발 제품 생산 돕는다

B2B광주제조거래센터 운영
시제품 제작·마케팅지원 등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1일 제품제조를 원하는 고객과 제품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연결해주는 'B2B광주제조거래센터' 운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단공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하이테크센터 5층에 B2B광주제조거래센터를 설립하고 제조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제조업체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B2B광주제조거래센터 주요 서비스로는 제조 컨설팅, 제조수요와 공급기업 매칭, 시제품 제작·마케팅·펀딩지원 등이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조 컨설팅 서비스는 광주제조거래센터에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해 시제품 기획·설계·제작, 제품 양산공장 매칭, 제품 홍보·마케팅 등 제조 전주기에 걸쳐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조수요와 공급기업 매칭 서비스는 스타트업, 예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제품 제조수요를 발굴, 발굴된 제조수요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제조공장을 발굴해 연결해준다.

또 제조수요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제품 무료제작 지원을 통해 우수아이템 제품화를 지원하고, 공급기업 매칭 후 양산자금 마련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지원과 양산제품의 홍보·마케팅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일상복 된 요가복 ㈜광주신세계 신관 지하 1층에 이달 새로 입점한 '젝시믹스' 직원들이 다양한 요가복 등 운동 전용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오는 17일까지 일부 품목을 최대 30% 할인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1. 해광, 샹그릴라 APT
- 선암동, 공105㎡ 전82㎡
- 10층, 101동, 남향, 조망 좋음
-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 5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2. 신안동, 상업용지
- 대지582㎡, 알반 상업 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최고요지
- 매매 – 21억

3. 대인동, 상업용지
- 대지515㎡, 알반 상업 지역
- 롯데백화점 부근
- 매매 – 19억

4.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계 108㎡, 전 67㎡
- 내부깨끗, 창가쪽, 전망 좋음
- 매매 – 1억 1000만원 (토지와 교환가능)